

☐ 홈 > 뉴스 > 해운 > 정책

COA총회 한국에서 첫 개최

[1565호] 2012년 04월 19일 (목) 20:50:23

곽용신  chaser@maritimepress.com

한국에서 처음으로 컨테이너오너협회(Container Owners Association ; COA) 총회가 개최된다.

COA코리아(대표 권오인, STX팬오션 상무)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회 COA총회(10th COA Members Meeting)가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선사, 리스업체, 제조사 등 전세계 컨테이너오너들이 모여 만든 COA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지사를 설치했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대표적인 정기선사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 1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COA총회는 그동안 1년에 두차례씩 아시아와 유럽에서 개최돼 왔고 아시아는 매년 중국 상해에서 열렸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제10회 COA총회는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총회 때마다 각국의 컨테이너선사와 리스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COA총회 역시 COA의 버나드 아이스어드(Bernard Isoard) 회장(CMA CGM)을 비롯해 주요 해외 컨테이너선사와 리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COA총회에서는 최근 냉매 폭발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 냉각장치를 비롯해 COA가 2년전에 선보인 화물사고정보시스템(CINS), 플렉시탱커, 컨테이너 데포, 컨테이너 자재 등에 관한 최신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 참가 문의 및 신청 : COA코리아 사무국(권오인 대표-02.316.5582, 전병진 사무국장-02.6274.1377, bjchun@boxjoin.com)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